사상체질의학회지 2012;24(1):43-53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Vol. 24, No. 1, 2012:43-53
http://www.esasang.com

체질별 표리에 따른 소화, 땀, 대변, 소변, 음수, 한열 특성 차이

장은수* · 백영화* · 박기현 · 이시우

한국한의학연구원

Abstract

The Difference of Digestion, Sweat, Stool, Urination, Drinking, Coldness and Hotnes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al Exterior and Interior Diagnosis

Eun-Su Jang, Young-Hwa Baek, Ki-Hyun Park, Si-Woo Le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 Objective

It is well-known that even if some people are born with same constitution, their symptoms can be different according to Exterior and Interior diagnosis. This study aimed to suggest different clinical symptoms according to Exterior and Interior group in individual Sasang constitution.

2. Methods

We collected 706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data of subjects from August 2009 to July 2011 using case report form of Questionnaire. The Sasang constitutional diagnosis and Exterior and Interior diagnosis were conducted by Sasang constitutional experts. All data were analyzed with Chi-square test and significant p value was 0.05.

3. Results

There are different symptoms between Exterior and Interior group in Taeeumin as followed, the frequence of famine and burp, the part of sweat, brown or not in color of stool, painful or not in evacuating, the frequence of loose feces, the frequence of abdominal inflating, the costive feeling frequence after evacuating, foam in urine or not, urination times, amount of Coldness and Hotness in belly, the frequence of turning fale in face. Soeumin as followed, digestion well or not, amount of sweat in exercise, the brown or not in color of stool, the frequence of turning fale in face, athe frequence of clearness in urine and feeling hot. Soyangin as followed, amount of appetite, amount of sweat in hot weather, sweat in neck or not, the red color in urine or not, Coldness and Hotness in foot or not, amount of drinking.

3. Conclusions

We may suggest that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symptoms are different between exterior and interior group in individual Sasang constitution respectively.

Key Words : Sasang Constitution, Sweat, Stool, Urination, Drinking, Coldness and Hotness, Exterior, Interior

*First two authors contributed equally

연구비 지원기관: the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ation (KOSEF)

• 접수일 2012년 02월 02일; 심사일 2012년 02월 06일; 승인일 2012년 03월 13일

• 교신저자 : 이시우
Division of Constitutional Medicine Research,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el : +82-42-868-9555 Fax : +82-42-861-5800
E-mail : bfree@kiom.re.kr

• The Societ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I. 서 론

동무 이제마는 (A.D. 1837-1900)『동의수세보원』[1]에서 용약을 위해서는 인(人)과 증(證)을 명확히 알아야 함을 이야기 하였다.『동의수세보원 사상초본권』「제 5통」에서 태소음양인의 체형, 피부, 얼굴색, 수면, 땀, 대변, 소변, 심리 및 질병을 앓고 있을 때의 제반증상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소증(素證)이 중시됨을 알 수 있다[2]. 송 등[3]도 증에 대해서는 특히 소증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는데, 소증이 병증(病證) 발현의 차이를 유발하여 체질병증의 출발점이 되므로 사상체질적 건강관리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현재까지 소증에 관해서는 체질을 진단하는 요소로서 그 특성을 알아본 연구들이 많이 있어왔다. 김 등[4,5]이 문진표를 중심으로 체질소증의 특성을 밝혔고, 체질별로 대변[6], 땀[7], 수면[8], 소화[9] 특성에 대한 상세 연구가 있어왔다. 최근에는 체질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요소로서 소증 특성이 규명되기도 하였다[10-12].

이 외에『동의수세보원』[1]「병증론(病證論)」에서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편재에 표리(表裏)개념을 넣어서 증상에 따라 표리가 달라짐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는 같은 체질이라 하더라도 표리에 따라서 평소의 증상이 다를 수 있고 그 치료법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증상은 같은 체질 내에서 환자의 표리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예후를 추정하며, 처방 등의 치료법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소증은 체질을 진단하고, 건강을 평가하는 지표일 뿐 아니라, 동일 체질 내에서 표리를 진단하고 처방을 선용하는 지표로 그 의미가 크다.

최근 장 등[13]이 일부 한열을 바탕으로 표리를 구분한 바 있으나, 표리특성을 체질 진단에 응용한 것으로 이는 표리의 특성을 밝혔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김 등[14]은 용약반응을 이용하여 체질별 표리특성을 역추적한 바가 있으나, 이는 후향적 추정 연구로 증상을 파악할 당시의 표리병증이 용약 시 표리병증과 동일하다는 가정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약점이 있다. 또한 태음인에 한정된 연구라는 점에서 사상인의 표리증상을 전체적으로 살폈다고 보기 힘들다.

사상인의 표리를 진단하는 증상지표를 발굴하여 처방을 선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체질별 맞춤치료를 완성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진단을 기반으로 사상체질별로 표리에 따라 제반 소증증상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 체질별 표리진단 지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대상자 선정

본 연구는 "체질진단 과학화를 위한 체질정보 수집체계 구축" 과제[15]를 통해 다기관 한방의료기관에서 수집된 임상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체질정보은행(Constitutional Information Bank)의 증례를 활용하였다. 2009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수집된 임상자료 중 표리진단이 있는 1,156건의 자료 중 표리겸병으로 기입된 대상자를 제외한 총 760건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 소증/병증 지표

소증 및 병증 측정도구로 증례기록지(저작물 번호: 제 C-2009-002439호)를 이용하였다. 완실무병 지표인 소화(4문항), 땀(5문항), 대변(9문항), 소변(3문항) 네 가지 항목과 음수(2문항), 한열(5문항)을 포함하여 6가지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별첨 1).

3) 체질진단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구성한 체질약리 기준[16]을 바탕으로 한방의료기관의 의무기록상 최소 60첩 이상 동체질 처방을 투여 받고 최소 4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경과를 관찰한 사람들 중에서 부작용이 없으며 주증과 소증, 병증이 일정 정도 이상 호전된 경우를 해당 체질로 보았다[15].

4) 표리진단

사상체질 전문의 혹은 5년 이상의 사상임상경험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or mean(sd)

Variable		Taeeumin		Soeumin		Soyangin	
		Exterior -disease	Interior -disease	Exterior -disease	Interior -disease	Exterior -disease	Interior -disease
Sex	Male	31(33)	105(45)	10(22)	40(29)	29(36)	64(38)
	Female	63(67)	126(55)	35(78)	102(71)	51(64)	104(62)
Age(yr)		44.0(17.2)	53.8(14.9)	42.0(14.3)	47.8(15.8)	45.9(15.2)	52.3(14.3)
Height(cm)		161.0(9.0)	163.0(9.0)	161.6(7.8)	161.1(7.9)	161.8(9.4)	160.5(8.7)
Weight(kg)		65.2(11.6)	67.9(11.0)	54.4(7.5)	54.2(7.4)	58.4(9.3)	59.8(9.5)

가지고 있고, 체질 처방 비율이 90% 이상인 사상체질 전문가에 의해 표리병증이 진단되었다.

5) 통계분석

통계 분석은 SPSS 13.0 for Window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체질별 표병군과 리병군에 따라 소증, 병증 문항의 응답빈도수 차이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value<.05로 하였다.

Ⅲ. 결 과

1) 일반적 특성

체질에 따른 표리군의 분포는 태음인은 표병군 94명, 리병군 231명, 소음인은 표병군 25명, 리병군 142명, 소양인은 표병군 80명, 리병군 168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태음인 표병군이 44세, 리병군이 53.8세였고, 소양인 표병군이 45.9세, 리병군이 52.3세, 소음인 표병군은 42세, 리병군은 47.8세였다(Table 1).

2) 태음인 표리병증 특성

태음인은 소화항목에서 허기짐과 트림의 빈도, 땀 항목에서 가슴 및 겨드랑이, 발, 전체부위의 땀 유무, 대변항목에서 갈색유무, 통증유무, 묽은변 빈도, 복부팽만 빈도, 배변후 잔변감 빈도, 소변항목에서 거품뇨 유무, 횟수빈도, 한열항목에서 복부의 한열, 얼굴색의 창백 정도에서 표리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허기짐과 트림의 경우 태음인 표병군은 '가끔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 46.8%와 52.1%로 높았고, 태음인 리병군은 '없다'에 51.5%와 51.9%로 높았다. 땀이 많이 나는 신체 부위 중 가슴과 겨드랑이에서는 표병군은 '그렇다'가 51.1%, 리병군은 '아니다' 62.3%였고, 발 부위에서는 표병군은 '그렇다'가 16%, 리병군은 5.2%였으며, 전체 부위에서는 표병군은 '그렇다'가 7.4%, 리병군은 17.3%였다. 대변색은 갈색 유무의 경우 표병군은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 74.5%, 리병군은 60.6%였으며, 대변 후 통증유무에서는 표병군이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 7.4%, 리병군은 34.5%였다. 묽은 변의 빈도에서는 표병군은 '가끔 그렇다' 48.9%, '없다' 31.8%였으나, 리병군은 46.8%, 42.9%였고, 복부팽창의 빈도에서는 표병군은 '없다' 41.5%, 리병군은 58%였고, 잔변감에서는 표병군은 '가끔 그렇다' 46%, '없다' 46%, 리병군은 각각 58%, 30.7%였다. 거품뇨의 경우 표병군은 '그렇다'에 6.4%, 리병군은 16.9%였고, 빈뇨에서는 표병군은 '가끔 그렇다' 38.3%였으나, 리병군은 '없다'가 42.9%였다. 한열에서는 표병군이 '배가 차다' 53.2%, 리병군은 '중간' 37.2%로 가장 높았고, 배가 찬 빈도 여부에서도 표병군은 '자주 그렇다' 38.3%, 리병군은 '없다' 49.8%였으며, 얼굴색의 창백 정도에서는 리병군이 '없다'에 응답한 비율이 80.1%로 높았다(Table 2).

Table 2. The Symptom of Exterior-disease and Interior disease in Taeeumin.

Variable	Taeeumin		p value
	Exterior-disease (n=94)	Interior-disease (n=231)	
Digestion_famished			
Often	20(21.3)	26(11.3)	.003
Sometimes	44(46.8)	86(37.2)	
Not at all	30(31.9)	119(51.5)	
Digestion_burp			
Often	13(13.8)	24(10.4)	.013
Sometimes	49(52.1)	87(37.7)	
Not at all	32(34)	120(51.9)	
Perspiration_part_chest and armpits			
yes	48(51.1)	87(37.7)	.026
no	46(48.9)	144(62.3)	
Perspiration_part_feet			
yes	15(16)	12(5.2)	.001
no	79(84)	219(94.8)	
Perspiration_part_all over			
yes	7(7.4)	40(17.3)	.022
no	87(92.6)	191(82.7)	
Excrement_color_brown			
yes	70(74.5)	140(60.6)	.018
no	24(25.5)	91(39.4)	
Excrement_after pain			
yes	2(7.4)	20(34.5)	.008
no	25(92.6)	38(65.5)	
Excrement_watery excrement			
Often	18(19.1)	24(10.4)	.049
Sometimes	46(48.9)	108(46.8)	
Not at all	30(31.9)	99(42.9)	
Excrement_abdominal expansion			
Often	18(19.1)	26(11.3)	.018
Sometimes	37(39.4)	71(30.7)	
Not at all	39(41.5)	134(58)	
Excrement_feeling of residual excretion			
Often	14(14.9)	28(12.1)	.025
Sometimes	40(42.6)	67(29)	
Not at all	40(42.6)	136(58.9)	
Urine_foamy			
yes	6(6.4)	39(16.9)	.013
no	88(93.6)	192(83.1)	
Urine_frequent urination			
Often	22(23.4)	74(32)	.049
Sometimes	36(38.3)	58(25.1)	
Not at all	36(38.3)	99(42.9)	
Heat&Cold_stomach			
Warm	9(9.6)	53(22.9)	.003
Normal	29(30.9)	86(37.2)	
Cold	50(53.2)	77(33.3)	
Not sure	6(6.4)	15(6.5)	
Heat&Cold_stomach_cold/chilly			
Often	36(38.3)	59(25.5)	.001
Sometimes	32(34)	57(24.7)	
Not at all	26(27.7)	115(49.8)	
Heat&Cold_face looks pale			
Often	10(10.6)	16(6.9)	.041
Sometimes	21(22.3)	30(13)	
Not at all	63(67)	185(80.1)	

3) 소음인 표리병증 특성

소음인은 소화항목에서 소화여부, 땀 항목에서 운동시 땀 량, 대변 항목에서 갈색 여부, 한열항목에서 얼굴색 창백, 소변맑고 투명, 열 더운 증세의 빈도에서 표리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소음인 표병군에서는 '소화가 잘 된다'가 73.3%,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가 26.7%였으나, 리병군은 '잘 된다' 56.3%, '잘 되지 않는다' 43.7%였다. 운동 시 땀 양에서는 표병군은 '중간'에 46.7%, 리병군은 '적다'에 37.3%로 가장 높았다. 대변색은 갈색유무의 경우 표병군은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 82.2%, 리병군은 66.2%였고, 얼굴색의 창백 정도에서는 표병군이 '없다'에 응답한 비율이 62.2%, '가끔 그렇다' 17.8%였으나, 리병군은 '없다' 46.5%, '가끔 그렇다' 38%였다. 소변색이 맑고 투명의 빈도의 경우 표병군은 '자주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 53.3%, 리병군은 '가끔 그렇다'가 41.5%로 높았고, 몸에 열이 나고 더운 정도는 표병군은 '가끔 그렇다'가 55.6%, 리병군은 '없다'가 57.7%로 높았다(Table 3).

Table 3. The Symptom of Exterior-disease and Interior disease in Soeumin.

Variable	Soeumin		p value
	Exterior-disease (n=45)	Interior-disease (n=142)	
Digest_well			
yes	33(73.3)	80(56.3)	.042
no	12(26.7)	62(43.7)	
Perspiration_Exercise			
a lot	16(35.6)	32(22.5)	.033
moderate	21(46.7)	52(36.6)	
a little	8(17.8)	53(37.3)	
none	0(0)	5(3.5)	
Excrement_color_brown			
yes	37(82.2)	94(66.2)	.041
no	8(17.8)	48(33.8)	
Heat&Cold_face looks pale			
Often	9(20)	22(15.5)	.042
Sometimes	8(17.8)	54(38)	

Not at all	28(62.2)	66(46.5)	
Heat&Cold_urine_clear			
Often	24(53.3)	50(35.2)	.021
Sometimes	18(40)	59(41.5)	
Not at all	3(6.7)	33(23.2)	
Heat&Cold_body_hot			
Often	3(6.7)	20(14.1)	.003
Sometimes	25(55.6)	40(28.2)	
Not at all	17(37.8)	82(57.7)	

4) 소양인 표리병증 특성

소양인은 소화항목에서 입맛의 정도, 땀 항목에서 더울 때 땀의 정도, 목부위의 땀 유무, 소변에서 붉은 여부, 한열에서 발의 한열, 음수에서 음수량 지표가 표리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소화입맛에서는 소양인 표병군은 '중간'에 응답한 비율이 53.8%로 높았고, 소양인 리병군은 '좋은 편'에 응답한 비율이 50%로 높았다. 더울 때 땀의 정도는 표병군은 '중간'이 46.3%, 리병군은 '많다'가 48.2%로 높았으며, 목 부위 땀이 '있다'에서는 표병군 30%, 리병군 15.5%였고, 소변색이 붉다의 경우 '그렇다'고 응답한 표병군 없었으나, 리병군은 4.8%였다. 한열에서는 표병군과 리병군 모두 '발이 차다'에 응답한 비율이 50%, 53.6%로 가장 높았고, 음수 양에서는 표병군은 '중간'에 응답한 비율이 63.8%, 리병군은 '중간' 38.1%, '조금' 27.4%였다(Table 4).

Table 4. The Symptom of Exterior-disease and Interior disease in Soyangin.

Variable	Soyangin		p value
	Exterior-disease (n=80)	Interior-disease (n=168)	
Digestion_appetite			
very good	1(1.3)	9(5.4)	.024
good	30(37.5)	84(50)	
fair	43(53.8)	58(34.5)	
not good	6(7.5)	17(10.1)	
Perspiration_hot weather			
a lot	33(41.3)	81(48.2)	.034
moderate	37(46.3)	48(28.6)	
a little	9(11.3)	35(20.8)	
none	1(1.3)	4(2.4)	
Perspiration_part_neck			
yes	24(30)	26(15.5)	.008
no	56(70)	142(84.5)	
Urine_color_reddish			
yes	0(0)	8(4.8)	.047
no	80(100)	160(95.2)	
Heat&Cold_feet			
Warm	8(10)	31(18.5)	.024
Normal	23(28.8)	42(25)	
Cold	40(50)	90(53.6)	
Not sure	9(11.3)	5(3)	
Water Consumption_much			
a lot	12(15)	35(20.8)	.002
moderate	51(63.8)	64(38.1)	
a little	11(13.8)	46(27.4)	
a little but often	6(7.5)	23(13.7)	

Ⅳ. 고 찰

소증과 병증은 사상의학에서 체질을 진단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이와 연관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소증과 병증은 체질 내에서 표리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증과 병증의 일부 항목들을 이용하여 체질별 표리간 차이를 살펴보고 표리를 구별하는 지표를 찾고자 하였다.

태음인을 표리에 따라 소증과 병증 지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허기짐과 트림의 빈도에서 표리군 차이가 났으며, 특히 표병군에서 '가끔 그렇다'가 많았다. 박 등[17]의 연구에서 태음인이 소음인에 비해 소화기 증상이 적었고, 김 등[14]의 연구에서는 트림과 허기짐이 태음인 특성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 두 가지 증상은 태음인 특성으로 고려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즉 트림과 허기짐은 태음인을 구별하는 체질진단 지표이기보다는 태음인내에서 표리를 구별하는 특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의수세보원』[1]「병증론 편재」에서 '위완수한 표한병'이라 하여 태음인 표병을 한증 특성과 연관시키고 있어 소화불편 증상인 트림과 허기짐은 태음인 한증과 관계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땀이 많이 나는 신체부위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표병군은 가슴 및 겨드랑이 부위와 발부위가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리병군은 전체적으로 땀이 난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장 등[18]의 연구에서 태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다한의 응답 비율이 높았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땀을 흘린다는 태음인이 많았다는 연구결과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전반적으로 고르게 땀이 나는 지표는 태음인 특성이며, 특히 태음인 리병군의 특성이라고 생각된다. 태음인 표리에 따라 땀 양의 차이는 없었으나, 표병군은 가슴 및 겨드랑이와 발 부위과 같이 특정 부위에 주로 땀이 나는 특성이 있는 반면, 리병군은 전반적으로 땀이 난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는 표병군이 부분적으로 땀이 많고, 리병군은 전반적으로 땀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땀이 나는 부위가 표리군을 나누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김 등[14]의 연구에서 머리와 얼굴 부위의 땀에 '예'라고 응답한 리병군이 많았고, '아니오' 에 응답한 표병군이 많아 땀나는 특정 부위에 대한 연구는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변과 관련하여 표병군은 묽은 변과 복부팽만에서, 리병군은 잔변감에서 '가끔 그렇다'에 응답이 많았다. 김 등[14]의 연구에서 태음인의 표병군과 리병군은 배변양상과 배변시 통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리병군은 변비, 표병군은 설사나 보통의 배변양상을 보였고, 리병군이 배변시 통증을 더 많이 호소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한증의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표병군의 특성이 한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배변 시 통증 증상은 리병군이 '그렇다'라고 더 많이 응답하였는데, 이는 리열의 임상적 특징으로 보인다.

소변과 관련하여 리병군이 거품뇨에서 '그렇다'에 응답이 많았으며, 이는 열증과 연관된다고 보였다. 빈뇨증상의 경우는 표병군은 상대적으로 '가끔 그렇다'가 많고, '자주 그렇다'가 적은 반면, 리병군은 상대적으로 '자주 그렇다'에서 많고 '자주 그렇다'는 적게 나타났는데, 태음인 리열이 있으면 소변빈삭의 증상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는 소변빈삭이 일반적으로 열증으로 변증되는 것[20]과 유사한 현상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한열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배의 온도', '배의 차가운 빈도', '얼굴색의 창백 빈도'에서 표병군이 더 많은 경향이었다. 백 등[19]의 연구에서 태음인은 전반적으로 '배가 따뜻하다'에 많이 응답하였으나, 김 등[14]의 연구에서는 태음인의 표병군이 '배가 차다'에, 리병군이 '배가 따듯하다'에 항목에 많은 응답을 한 점에서 전반적으로 복부 온도가 따뜻한 것은 태음 체질의 특성이나, 태음인 표병군은 리병군에 비해 복부 온도가 상대적으로 차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표병군이 전반적으로 한증의 특성을 많이 보이고, 리병군이 열증의 특성을 많이 보이는 경향이라 하겠다.

소음인을 표리에 따라 소증과 병증 지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화와 관련된 항목 중 소화여부에서 표리군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표병군은 '소화가 잘 된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상대적으로 리병군은 '소화가 잘 안 된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동의수세보원』[1] 「병증론 편재」에서는 '소음인 신수열 표열병, 비수한 리한병'이라 하여 표병군을 열증과, 리병군을 한증과 연관시킨 점에서 소음인 표병군이 소화가 잘되고, 리병군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태음인 표병군이 소화불편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한 것과 반대되는 현상으로, 태음인 표병군이 한증인 반면, 소음인 표병군은 열증으로 두 체질의 한열 특성이 표리에 따라 달라져서 나타나는 경향이라 생각된다.

땀과 관련하여 장 등[18]의 연구에서 소음인은 다른 체질보다 땀 양이 적은 경향을 보이며, 백 등[19]의 연구에서는 '식사 시 땀' 항목에서 체질 간 차이가 보였고, 특히 소음인이 '식사 시 땀'에 응답한 분포가 가장 적었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소음인은 전반적으로 땀이 적은 체질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운동 시 땀 양에서 표리 간 차이를 보였고, 소음인 표병군에서 '중간'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리병군에서는 '적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런 점에서 소음인이 전반적으로 땀이 평소 적은 특성이 있으나, 표병군에서는 리병군에 비해 다소 땀이 더 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땀과 관련된 이런 경향은 소음인 표병군

이 표열로 인해 생긴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한열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리병군이 몸에 열나거나 더운 정도가 '없다'에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점에서 표리 특성이 한열 특성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이 외의 한열 특성에서는 표병군은 얼굴 창백 정도에서 '없다'에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소변색이 맑고 투명한 빈도가 '전혀 그렇지 않다' 가 높은 반면, 리병군은 얼굴 창백 정도에서 '없다'와 소변색이 맑고 투명한 빈도가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일반적 한열 결과와 다소 일치하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서 소음인은 '외한'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외열'에 가정 적게 응답한 점과 '손, 발이 차다'에 많이 응답한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18,19], 소음인 자체가 한증 경향으로 한열구분이 어려운 것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고, 이 외에 다른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소양인을 표리에 따라 소증과 병증 지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화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입맛의 정도에서 표리 간의 차이를 보였고, 리병군이 '좋은 편'에 많은 응답을 하였다. 이는 소음인 표병군과 태음인 리병군이 소음인 리병군과 태음인 표병군에 비해 소화와 관련한 일부 지표에서 소화불편 증상을 적게 호소한 것과 비슷한 결과로 소양인 리병군이 열증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박 등[21]이 '신열두통망음증'과 '신한복통망음증'의 소증을 비교한 결과 평소 소화상태에서 한증이 열증에 비해 항상 소화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것과 비슷한 결과로 해석된다. 리병군에서 소변색이 붉다의 경우 '그렇다'에 응답이 높았는데, 이 역시 리병군이 열증의 특성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외 땀, 한열 및 음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리병군이 표병군에 비해 오히려 상대적으로 발이 차다에서 더 많이 응답하거나, 음수량에 있어 '조금' 혹은 '적게' 에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 표병군이 한증 특성을, 리병군이 열증 특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사상체질 전문가의 진단과 약진을 통해 확진된 사상체질 대상을 표병군과 리병군으로 나누어 체질별 표리 판단 지표를 살펴보고자 하여 체질에 따라 표리 병증 및 소증의 전반적인 경향성이 다름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단면연구로 정성적이고 주관적인 지표를 사용한 점, 연구 도구에서 증상의 유무 및 빈도가 일관되지 않아 일부 증상에 대해 해석이 어려운 점, 표병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병군에 포함되는 대상자가 많아 표병군과 리병군간의 대상자 수 차이가 많다는 점, 리병군의 대상자의 연령이 높다는 점 등의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표리군의 소증 및 병증 특성을 밝히기 위해 연령에 대한 고려 및 기타 요인에 대한 고려가 된 후속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더불어 체질 간 차이 외에 남녀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남녀 간 차이를 고려한 분석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향후 임상가들에게 체질처방 선용의 가이드를 제시해주기 위해서는 탕증별 소증 및 병증차이를 밝히는데까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중간 단계로 소증과 병증의 표리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는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보다 많은 후속연구가 이어지길 희망한다.

Ⅴ. 결 론

소증과 병증은 체질을 진단하는 요소일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질내에서 표리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처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지표이다. 이런 점에서 사상인의 표리를 진단하는 증상지표를 발굴하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맞춤의학의 완성이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진단을 기반으로 사상체질별로 표리에 따라 제반 소증증상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 동일 체질 내 표병군과 리병군에 따라 소증, 병증 특성이 일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전반적으로 태음인, 소양인 표병군과 소음인 리병군은 한증 특성을, 태음인, 소양인 리병군과 소음

인 표병군은 열증 특성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비록 소음인과 소양인 일부 지표는 일반적 한열 특성으로 설명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표리에 따른 임상특징은 동의수세보원 편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열특성과 비슷한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표병군과 리병군을 구별하는 지표들이 많이 개발되기를 희망한다.

Ⅵ.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Grant No. 20110027739)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Ⅶ. 참고 문헌

1. Lee JM. Longevity and life preservation in oriental medicine (東醫壽世保元). Seoul: Kyung Hee Univ. Press. 1996.(Korean)
2. Lee JM. 동의수세보원 사상 초본권. 집문당. 사상체질의학 초본권. 2005. 150-189.(Korean)
3. Song IB. The Study about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Constitutional Syndromes and Constitutional Pathological Syndromes. J Sasang Constitut Med. 1994;6(1):71-79.(Korean)
4. Kim JY. A Clinical Study of the Type of Disease and Symptom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J Sasang Constitut Med. 1996;8(1): 337-347.(Korean)
5. Kim YW, Kim JW. A Clinical Study of the Type of Disease and Symptom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J Sasang Constitut Med. 1999;11(1):119-135.(Korean)
6. Choi JY, Park SS. A Clinical Study of Stool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2;14(2):58-68.(Korean)
7. Choi JY, Lee YS, Park SS. A Clinical Study of Perspiration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2;23(4):186-195.(Korean)
8. Choi JR, Park SS. A Clinical Study of Sleep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3;15(3):204-215.(Korean)
9. Baek TH, Choi JR, Park SS. A Correlation Research of Digestion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4;16(1):186-195.(Korean)
10. Lee JC, Lee HJ, Lee YJ, Kim KH, Kim SH, Lee SW, Jang ES, Kim JY. Relations between the Questionnaire and Health State in each Sasang Constitution based on the Oriental medical doctors' diagnoses. J Sasang Constitut Med. 2011;23(1):108-114.(Korean)
11. Jang ES, Yoo JH, Baek YW, Kim HS, Kim JY, Lee SW. The Association between Symptom Evaluation Index and Health State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in Women. J Sasang Constitut Med. 2009;21(3):107-121.(Korean)
12. Jang ES, Kim HS, Yoo JH, Baek YW, OH SY, Lee SW. A Study on the Association between Sasang Health Index and THI(Todai Health Index) Score by Sasang Constitutions. J Sasang Constitut Med. 2008;20(2): 43-52.(Korean)
13. Jang ES, Kim MG. Baek YW, Kim YJ. Kim JY. Influence of Cold and Heat Characteristics and Health State in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J Sasang Constitut Med. 2009;21(3):76-88.(Korean)
14. Kim SH, Park KH, Jang ES, Kim JY. Differences in the Symptoms between Exterior-disease and Interior disease of TE type - BAsed on 659 Subjects-, J Sasang Constitut Med. 2009;21(2):96-106.(Korean)
15. 한국한의학연구원. 체질진단 과학화를 위한 체질정보 수집체계 구축.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8.(Korean)
16. 한국한의학연구원. 사상체질 진단 객관화 기초 연구.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pp 5-25, 2006.(Korean)
17. Baek TH, Choi JR, Park SS. A Correlation Research of Digestion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4;16(1):112-119.(Korean)
18. Jang ES, Kim HS, Lee HJ, Baek YH, Lee SW. The Clinical Study on the Ordinary and Pathological Symptom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7;19(3):144-155.(Korean)
19. Baek YH, Kim HS, Lee SW, Rhy JH, Kim YY, Jang ES. Study On the Ordinary Symptoms Characteristics of Gender Difference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9;23(1): 251-258.(Korean)
20. Ryu HH, Lee HJ, Kim HG, Kim JY.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Cold-Heat Pattern Questionnaire for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2010;16(6):663-667.
21. Park YG, Hong HJ, Kim YH, Hwang MW. The Cross-sectional Study on Characteristics between Soyangin Heat-related Diarrhea Accompanied by Headache and Soyangin Cold-related Diarrhea Accompanied by Abdominal Pain. J Sasang Constitut Med. 2011;23(2):240-253.(Korean)

<별첨 1> 소증 설문지

소증 설문지

소화

소화가 잘 되십니까?

1□예

2□아니오 ⇨ 소화가 안 되어 불편합니까? 1□예 2□아니오

평소 입맛은 어떻습니까? 1□지나치게 좋음 2□좋은 편 3□중간 4□안 좋은 편

소화와 관련된 상세질문입니다. 평소 아래 증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항 목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없다
체함	1□	2□	3□
토함	1□	2□	3□
울렁거림	1□	2□	3□
허기짐	1□	2□	3□
트림	1□	2□	3□
속쓰림 또는 신물 올라옴	1□	2□	3□
음식물 잘 안내려감	1□	2□	3□
메스꺼움	1□	2□	3□
복통 (소화관련)	1□	2□	3□
헛배 부름	1□	2□	3□

땀

평소 땀을 어느 정도 흘리는 편입니까? 1□많다 2□중간 3□적다 4□없다

땀 양 관련 상세질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땀을 흘리는 정도에 대해 표시해 주세요.

항 목	많다	중간	적다	없다
더울 때	1□	2□	3□	4□
운동할 때	1□	2□	3□	4□
긴장할 때	1□	2□	3□	4□
일상생활에서	1□	2□	3□	4□

땀을 흘리고 난 뒤 기분이 어떻습니까? 1□상쾌 2□피곤 3□아무느낌 없다

(*)땀이 날 경우 주로 나는 부위는 어디입니까? (모두 체크)

1□머리와 얼굴 2□목 3□가슴과 겨드랑이 4□등

5□손 6□발 7□사타구니 8□특별히 정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난다.

(*)식은 땀 등 비정상적인 땀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모두 체크)

1□없다 2□밤에 식은땀 3□낮에 식은땀 4□식사시 땀

대변

평소 대변 습관은 어떻습니까? 1□규칙적 2□불규칙적

(*)대변색은 어떤 편입니까? (모두 체크)

1□황색(황금색) 2□갈색 3□검은색 4□회색 5□붉은 색(혈변)

대변의 굵기는 어떤 편입니까? 1□가는 편 2□중간 3□굵은 편

대변의 굳기는 어떤 편입니까? 1□딱딱함 2□중간 3□무름

대변의 양상은 어떤 편입니까? 1□설사 2□변비 3□변비설사교대 4□음식 따라 다름 5□보통

대변의 모양은 어떤 편입니까? 아래 그림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7□
단단한 염소 똥 모양	딱딱, 울퉁불퉁한 소시지 모양	표면이 갈라진 소시지 모양	부드러운 떡가래 모양	물렁물렁한 수제비 모양	죽처럼 풀어진 모양	고형성분이 없는 물 설사

평소 대변을 볼 때 또는 보고나면 시원합니까?

1□시원하다

2□시원하지 않다 ⇨ 대변이 시원하지 않아 통증도 있습니까? 1□예 2□아니오

대변 관련 상세질문입니다. 평소 아래의 증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소증 설문지

항 목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없다
묽은 변	1□	2□	3□
딱딱한 변	1□	2□	3□
배변하지 못하는 날 있음	1□	2□	3□
하복부 통증	1□	2□	3□
복부 팽창(가스 참)	1□	2□	3□
복부 불쾌감	1□	2□	3□
배변 시 긴박감	1□	2□	3□
배변 후 잔변감	1□	2□	3□

소변

평소 소변의 세기는 어떻습니까? 1□세다 2□중간 3□약하다

(*)평소 소변 색과 탁함은 어떤 편입니까? (모두 체크) 1□탁하다 2□색이 맑다 3□노랗다 4□붉다 5□거품뇨

소변 관련 상세질문입니다. 평소 아래증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항 목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없다
배뇨 통증 (불쾌감 포함)	1□	2□	3□
자주 봄	1□	2□	3□
시작하기 힘듦	1□	2□	3□
잔뇨감	1□	2□	3□
요실금	1□	2□	3□

한열

평소 추위, 더위 어느 것이 더 싫습니까? 1□추위 2□더위 3□모두 싫다 4□모두 괜찮다

손이 차가운 편입니까? 따뜻한 편입니까? 1□손이 따뜻하다 2□중간 3□손이 차다 4□잘 모름

발이 차가운 편입니까? 따뜻한 편입니까? 1□발이 따뜻하다 2□중간 3□발이 차다 4□잘 모름

배가 차가운 편입니까? 따뜻한 편입니까? 1□배가 따뜻하다 2□중간 3□배가 차다 4□잘 모름

평소의 한열 증상에 대한 상세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항 목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아니다
따뜻한 기운이나 따뜻한 온도가 좋습니다	1□	2□	3□
배가 차갑고 서늘한 편입니다	1□	2□	3□
손발이 잘 시리거나 차가운 편입니다	1□	2□	3□
얼굴색이 창백한 편입니다	1□	2□	3□
소변이 맑고 투명합니다	1□	2□	3□
갈증이 있건 없건 물을 마시기가 싫습니다	1□	2□	3□
시원하고 서늘한 기온이나 자극이 좋습니다	1□	2□	3□
몸에 열이 나고 더운 증세가 있습니다	1□	2□	3□
손발바닥이 덥고 답답한 증세가 있습니다	1□	2□	3□
얼굴이나 눈이 잘 충혈되거나 붉어집니다	1□	2□	3□
갈증이 나거나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1□	2□	3□
소변이 색이 진합니다.	1□	2□	3□

음수

평소 물을 어느 정도 마십니까? 1□많다 2□중간 3□조금 4□조금씩 자주

평소 마시는 물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1□주로 따뜻한 물 2□주로 찬물 3□가리지 않고 마신다